

뜨거운 태양이 눈부신 계절,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도
한낮의 태양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contents

KOSCA MESSAGE

- 04 권두사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KOSCA NEWS

- 06 협회 소식
- 10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14 특허 및 신기술 소개 2022년 2/4분기 신기술 현황

KOSCA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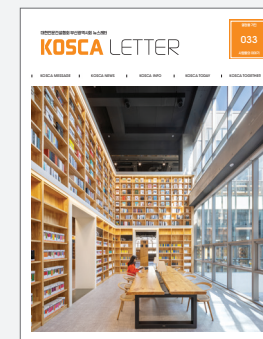
- 16 전문건설인의 삶 건설인 제63호 - (주)창성공영 대표이사 안병호
건설인 제64호 - (주)테마월드 대표이사 신수정
- 20 건설산업정보 Section 01 - 법령개정
Section 02 - 회원사안내
- 32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34 특별기고 건강관리 40대 폐암 환자의 색다른 양상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36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KOSCA TODAY

- 37 회원사 현황
- 40 협회·조합 소식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022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41 2022년 건설업 교육
- 4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KOSCA TOGETHER

- 44 부산의 명소 광안리 해수욕장
- 45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 46 소통하는 문화공간 힐링 무비, 힐링 북
- 50 친환경 꿀팁
- 51 틈새회화
- 52 슈퍼 푸드 사전
- 54 취미의 발견
- 56 하루 5분 운동, 건강 상식
- 58 독자와 함께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3

표지이야기 부산도서관
(2021 부산 건축상 은상 수상작)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입니다.

근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건설시장 침체 등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도 부산지역의 건설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 전문건설인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도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과 더불어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 2·6단계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조 9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인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도 2,270만TEU의 역대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8대 교역국으로 진입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에서는 부산항을 글로벌 미래 항만을 대표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키고자 안전·친환경, 운영 효율화,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항만인프라 건설 혁신, 자동화 항만 실현의 5대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인프라 건설 혁신을 통해 첨단 항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참여 등으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힘찬 도약에 함께 뛰겠습니다.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자랑스러운 부산의 전문건설인 여러분과 함께 부산항이 세계 최대 물류 허브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인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안전의 결합으로 지역 건설산업 성장 엔진이 다시 불붙기를 기원합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반갑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입니다.

먼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코스카레터 제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여 부산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기관입니다. 현재 4개 노선(114개역, 115.2km)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산권 교통망 증진을 위한 사상-하단선, 부산-경남교통권 연결을 위한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 활발한 협의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건설 동시 수행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도시철도는 단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동·서·남·북 주요 거점 연결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으며, 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및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교통 혁신의 중심에 부산 도시철도가 있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신규노선 확충과 더불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안전·스마트 철도를 선도하기 위해 ICT 기반 사전예지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1·2호선 노후시설 고강도 안전진단 결과 집중 안전투자를 위해 5년간 6,883억원을 투입하는 등 노후 도시철도 조기 개량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철도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선 지역 전문건설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여러분이 우리 공사와 함께 혁신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키우면 도시철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 엔진이 다시 불붙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